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6-27)



〈Saint Mary Refuge of Sinners〉, Cambridge, MD

[제1독서] 지혜 9,13-18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필레몬 9ㄴ-10.12-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루카 14,25-33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 성체성가: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파견성가: [289] 병인 순교자 노래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때에 ²⁵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²⁶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⁷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⁸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²⁹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³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³¹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³²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³³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다. 이 9월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103위를 비롯하여 순교 복자 124위 등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묵상

예전에 아들을 너무나 아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간 것 같아서 며느리를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들은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럴 수 있느냐며 자신을 떠난 아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 과 ‘소유’ 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위 어머니가 한 것은 ‘소유’ 이지 ‘사랑’ 이 아닙니다. 물건은 소유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려 하니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보내 주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떼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느님께 봉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라’ 는 말은 ‘봉헌하라’ 는 뜻입니다. 봉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고 하십니다. 투자의 귀재가 자신에게 적은 돈을 맡기면 크게 불러 주겠다고 말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그에게 내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더 큰 돈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어놓아야 하듯이, 더 큰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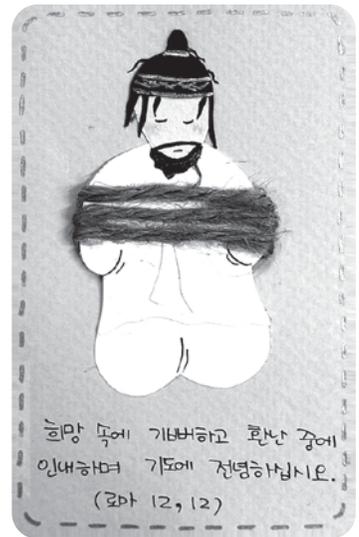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참희망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는 9월 14일을 성 십자가 현양 축일로 기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 주셨다.” (요한 3,16 참조)

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드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표징, 즉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상징이자 우리 구원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성부의 자비가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악에 대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 희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참희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거룩한 십자가를 현양하는 까닭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 성호를 긋는 이유입니다. <2014년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설교 중에서,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가톨릭출판사>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 축일의 기원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노력으로 찾게 되었다. 황제는 이를 기념하고자 335년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다. 그 뒤로 십자가 경배는 널리 전파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9월 14일로 이 축일이 고정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청소년 사목과 본당 공동체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문장은 짧지만 매우 강한 힘을 지닌 듯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금세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는 어느새 가슴속 깊이까지 다가가 있고 있었던 중요한 책임감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 문장이 그저 하나의 표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의 진실한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베포족의 용서” 혹은 “바베포족의 특별한 재판”이라는 제목 등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중의 하나인 바베포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베포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하여 마침내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들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내는 것입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가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줍니다. 그렇게 칭찬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는 축제를 벌이고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축제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프리카에서는 한 아이를 온전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 한 개인을 온전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8월 세 번째 주에는 본당에서 청소년, 청년들과 관련된 봉사자 30여 명이 모여 ‘청소년 사목 Workshop’이란 이름 아래 나눌간 마음과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청소년·청년 사목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적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곧 청소년과 청년들이 보호와 지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2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청년 사목에 임하는 봉사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제2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청년 사목의 핵심은 그 목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공동체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마을(본당 공동체 전체)이 필요” 합니다. 온 마을이 비난과 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함을 믿음으로써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온 마을의 평화를 이루듯이, 온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본당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기쁨 속에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온 마을이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LOGOS

로고스 여름캠프

Aug 30 - Sep 2, 2019 CAMBRIDGE, MD



지난 8월 30일(금) 로고스회 청년들은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과 함께 메릴랜드 Cambridge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26명의 청년들은 3박 4일 동안 보트타기와 농구, 물놀이, 보드게임 등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더욱 더 가까워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신부님의 지도 아래 복음 나누기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캠프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준 회장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더 친해졌을 뿐만 아니라 함께 더 의미있는 신앙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로고스

멤버들이 앞으로 있을 하이킹과 봉사활동 등 다른 활동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로고스회 -



Youth Choir & Orchestra's "BBQ Social"



On Sunday, September 1st, 2019, Youth Choir & Orchestra had a BBQ party at the Sharing Center next to Hasang building. Father Kang visited and offered grace before the meal. The members and their families gathered together and had a good time sharing delicious meals cooked and prepared by parents and teacher.

Special thanks to: Fr. Kang, Stephania Cho(Conductor) and the dads who cooked the meat .

2019-2020

St. Paul Chung Youth Choir & Orchestra

OPEN AUDITION

WHEN	Sunday, Sep 15 th , 1 pm
WHERE	Hasang Building B #7
WHO	7 th to 12 th Grade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SINGER	6 th grade to 12 th grade

- 1 self selected piece
- Sight reading
- Scale (up to 3 flats/3 sharp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tephania Cho** (703-725-3167)

23R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8, 2019

Family and Friends or God?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says, "If any 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You probably thought that God doesn't want us to hate anyone, right? Well, He doesn't! What Jesus was saying was that we should love God more than we love the people closest to us. He means that we should be ready to do what God wants even if that means losing our family or best friends.

Normally God wants us to stay close to the people we love, but what if you had to choose between doing the right thing or keeping your friends? Are you ready to give up anything or anyone that would stop you from loving God? <<https://www.thekidsbulletin.com>>

SEPTEMBER 8

The Birth of the Blessed Virgin Mary

The Catholic Church celebrates today the birth of the Blessed Virgin Mary on its traditional fixed date of September 8, nine months after the December 8 celebration of her Immaculate Conception as the child of Saints Joachim and Anne.

ANNOUNCEMENT

1 The First Day of Sunday School 2019-2020

• **When:** Sunday, Sep 8, 10 am

2 Sunday School Volunteers

• **Positions:** Catechists(K-12th), Assistant Catechist, Office Assistant
 • **Question?** Contact parish office or Sunday school office

3 Confirmation class : The first day of the Second Semester

• Wednesday, Sep 11, 7:45 pm - 9 pm

Fill in the blanks (Sep 1, 2019) Answer

G o d i s e x a l t e d b y t h e h u m b l e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하상 성인학교 장구교실에서 쓴 장구 판매하실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장구교실 강사 김춘실 마리아 (703)909-5429

2019 동중부 한인 성소 기도의 날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s Conference 2019



“COME AND SEE”

John 1:39

SATURDAY, SEPT. 21, 2019

2019년 9월 21일(토)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Questions: (703) 403-1185

- **2:00pm - 2:15pm** Registration
- **2:30pm - 4:30pm** Sessions
- **4:40pm - 6:00pm** Activities / Q&A
- **6:00pm - 7:00pm** Dinner
- **7:30pm** Vigil Mass

This event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Arlington Diocesan organizations:

- Office of Vocations
-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
-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hurch

FEATURING



Fr. Inhyun Paik
백인현 신부



Fr. Dooyoung Kang
강두영 신부



Fr. Joe Kim
김인 신부



Fr. Joseph Kim
김요셉 신부



Fr. Michael Isenberg
마이클 아이센버그 신부



Zinjin Iglesia
진진 이글레시아



Sr. Christina Chong
정 크리스티나 수녀



Ji Choi
최지경

1 한가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3일(금) 오후 8시
- 합동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81차 예비자 입교식

- 일시 : 9월 8일(일) 오전 11:30(하상관 #110)

3 주일학교 개학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일시 : 9월 8일(일) 오전 10시(체육관)

4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2019-2020학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혹은 보좌 신부님께 연락바랍니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5 단체장 회의

- 일시 : 9월 8일(일) 오전 11:30(B-3,4)

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8일(일) 오후 1시(B-3,4.)

7 사회복지 세미나(복지부 주관)

- 일시 : 9월 8일(일) 오후 12시(A-1,2)
- 내용 : 연방 정부 / 주 정부 혜택 및 복지 프로그램 안내

8 공동체 기도회 모임

- 일시 : 9월 14일(토) 오후 8시
-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9 CYO 성가 / 오케스트라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 7학년 - 12학년 (노래, 관현악)
- 오디션 : 9월 15일(일) 오후 1시 (하상관 지하 #7)
- 문의 : 스테파니아 조 (703)725-3167

10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 신청 : 9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하상 성인학교 2019년 가을학기 등록 / 개강식

- 교육 기간 : 9월 10일(화) - 12월 6일(금)
- 등록 : 이번 주일(8일)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개강식 : 9월 10일(화) 오전 9:10(하상관 #110)
- 강사와 수강생 모두 개강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야나 교장 (703)217-2775

12 베드로회 월례회의

- 일시 : 9월 15일(일) 오후 1시(나눔터)

13 야외 울뜨레아

-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시
- 장소 : Bull Run Park Shelter 7
- 모든 꾸르실리스라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4 하상회 / 안나회 월례회의 및 추석잔치

-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30(A-1,2,3,4)
-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30에 픽업합니다.

15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15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16 동중부 한인 성소 기도의 날 행사

- 일시 : 9월 21일(토) 오후 2시, 본당 (참가비 무료)
- 등록 : 9월 15일까지, 10시 미사, 11:40 미사 후, 성당 입구

17 동중부 꾸르실리오 특강 - 향주삼덕

-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2:30 - 오후 4:30, 친교실
- 민병섭 바오로 신부(성서 신학박사, 전 대전 가톨릭대 총장, 현 리치몬드 성당 주임신부)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8 빠뜨리치안회 월례모임

-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 주제 : 교통의 문제 •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19 제2회 본당 승경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1시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20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

-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7:30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9월 8일(일) - 10월 6일(일),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 도내이션도 받습니다.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21 대학 진학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대학 진학에 대한 모든 것"
- 강사 : 대니엘 김(요셉) FCPS 교사/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8일(일)	연중 제23주일	사회복지 세미나(오후 12시, A-1), 단체부 모임(오전 11:30, B-3,4), 예비자 입교식(오전 11:30, 하상관 #110), 꼬미시움(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모임(오후 1시), 센터빌 구역모임(오후 1시, 나눔터)
9일(월)	성 베드로 클라베르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10일(화)	연중 제23주간	평일미사 (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 개강(오전 9:20)
11일(수)	연중 제23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12일(목)	연중 제2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13일(금)	한가위	하상 성인학교,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오후 8시, 성당)
14일(토)	성 십자가 현양 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
9월 15일(일)	연중 제24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시), 하상회/안나회 모임(오전 11:30,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5), 베드로 모임(오후 1시, 나눔터)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해외 파견 한국 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3주간: 잠언 8-13, 갈라 3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12일(목) 오후 5:00-6:00
9월 13일(금) 저녁 8:00-9:00
9월 1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 지척으로 다가온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9월 1일(연중 제22주일)

주일헌금	\$7,533.00
교무금	\$9,490.00
교무금(크레딧카드)	\$6,815.15
특별헌금	\$450.00
2차헌금	\$0.00
합계	\$24,288.15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윤규희(벌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정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모), 손범기(멜락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창(프란치스코), 주기환(멜랄), 최홍집(앤토니), 심우천(요한), 장종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셀(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현(모세), 박홍모(야사시오), 제임스 리(호산), 안범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703-785-4494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챌들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아리랑시니어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HOP 건너편) 703-543-6008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703-231-6030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대학 진학 컨설팅 대니얼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글로벌 가정의학과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Well Skin Care 오픈기ئم 특별 이벤트 애난테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타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